

데스크 시국



김대성 제2사회복지장

인구 감소 위기와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한 대기업의 행보가 시선을 끌고 있다. 물류 업체인 쿠팡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오는 2027년까지 로켓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한다. 지역 소도시도 로켓배송 가능 지역인 '쿠세권'으로 만든다는 계획인데,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배송 지역을 차례대로 늘려 사실상 '전국 인구 100% 무료 로켓배송'을 목표로 하는 야심 찬 구상이다. 쿠팡은 현재 전남 영암과 강원도 삼척, 전북 김제 등 17곳에 쿠세권을 운영 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3년 뒤엔 인구 감소 지역 60여 곳 이상으로 무료 로켓배송이 확대될 전망이다.

쿠팡의 메시지가 전하는 의미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나 공기업이 아닌 경제적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의 투자 계획까지도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절체절명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나 3월을 기준으로 인구 180만 명 선마저 무너

위기엔 더욱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진 전남도로서 이 같은 상황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현실일 것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집중화가 낳은 결과물이다"라고 호소해볼 만도 하지만 감소 폭이 줄지 않고 있으니 변명해봐야 소용없는 노릇이다.

첨단한 결과와 안타깝지만 전남도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19년에만 100개의 인구 정책을 내놓았고 올해는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아 인구정책·청년지원·귀농어귀촌지원·출산지원·외국인·인공지능 등으로 꾸려진 인구청년정책관실을 확대한 '인구청년인민국'도 신선했다.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을 포용적 이민으로 확대·전환해 정부의 출입국·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올해도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마을 조성 확대, 전남에서 살아보기,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을 시행하고 주택 등 정주환경 개선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출산환경 개선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전남도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외지 인구 유입 가능성마저 희박해지자 전남형 만원주택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정책이 안정적인 정주환경 제공으로 그나마 인구 유출을 막는 최선책으로 판단한 것이다.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해 9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35년까지 '만원주택'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구체화했다.

전남도는 최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고흥, 보성, 진도, 신안을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 고흥·보성·신안군 각 50호, 진도 60호 등 총 210호가 빠르면 2026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 주택은 도비 및 광역소멸기금 등 2843억 원을 투입,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와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로 신축한다고 한다.

'전남형 만원주택'에 거는 기대

'위기는 확대되고, 이에 더해 위기감은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다. 사실 쿠팡의 투자 계획도 그 이면에는 쿠팡의 위기감과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1위 이커머스 사업자인 알리바바 그룹이 매출, 영업이익, 시가총액 등 모든 면에서 쿠팡을 압도하는 데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시장의 장악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차이나 커머스'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유통업계에서 차이나 커머스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만큼 쿠팡은 앞으로 더 크게 막힐 위기를 대비해 추가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전남도의 상황도 쿠팡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쿠팡의 선전과 함께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

은펜칼럼



김창군 빛고을고등학교 교장

지난달에 돼지 화가 '피그카소'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그카소는 돼지를 뜻하는 '피그'(pig)와 스페인 화가 '피카소'(Picasso)를 합친 말로 2019년 한 전시회에서 피카소 화풍을 닮았다는 칭찬을 들은 이후 얻은 별명이라고 한다.

도축장에서 구조된 돼지 한 마리를 화가로 거듭나게 한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동물보호단체 운영자 조앤 레프슨의 관심이었다. 구조 직후 피그카소는 우리에 있던 물품을 송두리째 부숴버린 붓만은 말렸었다. 이를 본 레프슨은 그의 입에 붓을 물려 하얀 캔버스 앞에 서게 했고, 그의 작품 가운데 하나인 '야생과 자유'는 비단간 동물이 만든 작품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인 2만 파운드(약 3100만원)에 팔렸다.

한편 세계적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은 개 식용처럼 첨예한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설득하는 것이 좋다고 피그카소가 좋은 예라고 하였다. 돼지가 똑똑한 동물임을 알리기 위해 피그카소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를 본 사람들은 "이제 베이컨을 못 먹게

관심과 배려의 힘

됐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레프슨과 피그카소를 이어준 것은 갑작스러운 감정이었을까. 얼핏 보면 어쩌다 얻게 된 운명 같지만 우연과 운명 사이에는 예상일을 간과하지 않은 '정곡을 찌르는 탐문'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싶다. 피그카소가 화가로서의 유명세와 더불어 동물 복지의 상징으로 자리한 데는 붓에 대한 애착을 포착한 레프슨의 역할이 컸다.

그 결과 피그카소는 베이컨이 될 운명에서 벗어났고 그의 재능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으로 하여금 먹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제 피그카소는 무지개다리를 건넌지만 그의 사연은 가슴거리를 넘어서 사소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예리한 관심과 배려의 힘을 생각하게 한다.

최근에 다시 접한 피터 레이놀즈의 그림책 '점'에는 무엇을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아이 '베티'와 함께하는 선생님도 등장한다. 어느 날 미술 시간,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베티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 그때 다가온 선생님은 베티의 텅 빈 도화지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와! 눈보라 속에 있는 북극곰을 그려봐."

베티는 "늘리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못 그려졌어요."라고 소리쳤지만 선생님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그려보라고 한다. 결국 베티는 도화지 위에 연필을 내리꽂아 점 하나를 찍고 이를 본 선생님은 그 옆에 베티의 이름을 쓰게 한다. 일주일 후 베티의 서명이 선명한 '점(point)' 그림이 금세 액자에 걸렸고 이후 베티는

훨씬 다양하고 멋진 형태의 점을 연습하여 성대하게 전 사회까지 열게 된다.

우리 교육은 오랫동안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주입식 교육의 학습 모델을 추구해 왔다. 지금도 입시 지향의 단거리, 결과 중심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에는 AI 교사의 등장으로 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교류에 의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두둔하지만 여전히 획일성과 효율성의 높은 길기만 하다.

그레도 분명한 것은 무엇을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아이에게 길을 터주는 역할이 선생님에게 있다는 점이다. 뭐라도 시도해 보라는 배려의 마음은 하얀 백지에서 눈보라 속의 곰을 알아보는 데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방향의 결과물처럼 보일지라도 이를 아يا가 해낼 수 있는 최선의 작품이라고 인정해주는 데서 아이의 잠재성은 발현의 여지를 남긴다.

선생님이 본 눈보라 속 곰은 아마도 베티 내면에 잠재한 열망이었을 것이다. 이를 인내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게 안내하고 여기에 개성과 창의력을 담아 훌륭한 작품으로 이끈 것은 선생님에게 가능한 일이었다.

더욱이 추상의 세계에서 홀로 자유를 누리다 생을 끝낸 피그카소와 달리 베티는 더 넓은 세상을 열어간다. 누나처럼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고 베티를 부러워하는 한 아이에게 너도 할 수 있으니 그려보라며 도화지를 건넨다. 그리고 나서 연필을 쥐여주며 이름을 쓰라고 말한다. 베티의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기후 변화는 기후 붕괴의 시작

뭍으로 인한 산불로 보험사들이 역사상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인간이 감당해야 할 직·간접적인 경제적 비용을 가리키는 '기후 비용(climate cost)'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쓰인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20년간 극심한 기온 현상으로 약 2.8조 달러의 기후 비용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기후 비용이 일상생활에 경제적 지출을 강요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며칠 전 끝난 22대 총선기간 이슈가 된 금사와 신드롬은 폭염과 가뭄이 야기한 작황 부진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애플+인플레이션)' 현상이라 불릴 정도로 사과 가격이 급등해버린 사례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기후변화 지표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또 지난 3월 '2023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지구평균 표면 온도는 174년간 관측기록 중 가장 뜨거웠다"고 발표했다.

CNN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2023년 3월 이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매일 역대 최고 1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 소속 해양학자는 "지난 20년간 오르는 온도가 불과 1년 만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바다가 이렇게 뜨거워진 것은 지구온난화에 더해 지난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자

연 현상인 엘니뇨가 평년보다 자주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수면 온도 상승은 산호초 등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폭풍,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연결돼 호주의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백화(白化) 현상이 발생했는데 다음아닌 엘니뇨로 인한 피해다.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 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유지될 때를 말한다.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이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이상(興衰) 현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엘니뇨와 라니냐는 세계 각지에 '극한 날씨'를 발생시킨다. 올 겨울 우리나라가 유달리 따뜻하고 눈·비가 잦았던 원인 중 하나도 엘니뇨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붕괴 현상이 안타깝게도 일상화 되고 있으며 우리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기후 붕괴 현상을 맞이하게 됐다. 이른바 비정상상의 일상화, 즉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는 끝나고,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왔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인정해야만 하는 '뉴노멀 시대'가 다가오고야 말았다. 기후 붕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두가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때다.

社說

단일 국립의대 설립...전남도에 민고 맡겨야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통합 의대' 방식에서 '단일 의대'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목표와 순전을 중심으로 동·서부권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단일 의대를 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전남도의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 주민들의 30년 숙원으로 당초 목표대와 순천대를 통합해 2개 캠퍼스에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대학을 한 곳으로 정해 줄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단일 의대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목표대와 순천대를 중심으로 양 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가세해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과열 경쟁을 빚자 전남도가 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공모 방식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양 지역 대학 총장과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15일 목표대 총장과 목표시정 등을 상대로 단일 의

대로 변경한 배경과 불가피성을 설명한 데 이어 18일에는 순천대 총장과 순천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송하철 목표대 총장이 어제 전남도의 의대 유치 공모에 응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당시자인 대학 총장의 공모 참여 방침에 따라 목표권의 반발 움직임은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남은 것은 순천권의 반발 움직임인데 순천지역에선 일부에서 전남대 공모에 참여하지 말고 교육부에 독자 신청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만히 보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지역 정치권이다. 총선 과정에서 출마자들이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고며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이 무엇보다도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모를 주관하는 전남도를 믿고 맡겨야 한다. 전남도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흑시라도 있을지 모를 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정책...실질적 대안돼야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연 평균 인구 증가율과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재정자립도 등 인구감소지수 8개 지표를 고려한 결과다. 5개 시(나주·목포·여수·순천·광양)와 무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총인구(외국인 제외)는 2014년 3월 기준 190만 5860명에서 올해 3월 기준 179만 8435명으로 10년 동안 10만 7425명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중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림으로써 지역이 활기를 불어넣어 지방소멸 위기를 막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4억원 이하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와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역 특화형 비자 할당 인원(쿼터) 2배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 방안에 대해 정부의 현장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농·어촌에 4억원 이하(공시가격)의 '세컨드 홈'을 마련할 수요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조성하는 소규모 관광단지 또한 새로운 수요 창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인원 확대는 부족한 노동력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 추세는 보이는 전남 각 지자체 입장에서 '지방소멸'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다. 무엇보다 청년세대가 지역에 머물러 살기 위해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함께 육아, 교육, 문화, 복지 문제 등이 동시에 충족돼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가 결정된다.

無等鼓

시인의 엄마는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한다. 명절을 앞두고 동생과 엄마 일을 돕던 시인은 옆집 빵가게 영수 엄마가 새빨개진 얼굴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처음에 우는 이유를 몰랐던 그는 종일 자신과 동생이 엄마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는 모습을 영수 엄마가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제서야 세상을 떠난 영수를 떠올린 그는 "너희 엄마가 너를 정말 보고 싶어해서. 온 힘을 다해 꿈에서라도 찾아 봐도 좋겠다"고 오래도록 기도한다.

이후 시인은 스물 세 살이 된 영수 친구들이 '어머니'하고 외치며 빵집에 찾아와 영수 엄마를 꼭 끌어안는 모습을 본다. 영수가 너무 보고 싶을 때는 노래방으로 가서 눈치 안 보고 평평 울고 온다는 영수 부모는 이날, 환하게 웃는다. 고령자 시인의 글 '처음지 말고 기억해'는 "계속 우리가 같이 기억하자고, 그래야 시간과 사건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고 시인의 글은 4.16재단이 2020년 6월 16일부터 매일 16일 홈페이지에 연재하는 '월간 심옥일' 코너에 실렸다.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이어지는 '월간 심옥

일'은 다양한 작가들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글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계속 이야기해 나가기 위해 기획됐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홈페이지에 실린 글들을 묶은 '월간 심옥일-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 에세이'(사계절)가 나왔다. 입진아 작가의 따뜻한 그림이 담긴 표지를 열면 김겨울, 나희덕, 김애란, 정보라, 정세랑, 천선란, 은유 등 50명의 작가가 기억하는 세월호 이야기를 만난다.

"서로의 기억하는 방식과 이야기를 차곡차곡 모아 기억관을 만들고 그곳에 오래오래 기억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쓴 음

약가 이랑의 말처럼 10년 전 '그 때'를 몸과 마음으로 겪었던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다. "그 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 곳에서 슬피 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라며 노래하는 '내 영혼 바람되어'의 가사처럼 세상에 있는 자, 없는 자 서로를 위로하고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자. /김미은 여론매체부장mekim@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for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 note about content quality.